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2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5. 면류관 벗어나서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높이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위에 움츠러든 몸처럼 이기심과 염려로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활짝 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허물도 넉넉히 안아주시는 주님의 넓은 품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이티에 큰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집과 함께 무너져 내린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국제사회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 많은 이들이 힘을 더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지구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눅3:22
♠ 교 독 문	87.계시록21장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한성건 선생 II.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92. 주여 어린 사슴이
성경봉독	I. 막1:9-11
찬 양	II. 눅15:8-10
말 씬	I. 내가 너를 좋아한다
거둠기도	II. 기쁨으로의 초대

임창주 학생
하정석 집사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 찬 송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나누며 사십시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기적을 맛보며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라며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좀더 마음의 울타리를 낮추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구역회	별난 복음, 요한복음 2
	기도 : 김윤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박경원 집사	임해나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의 장로	이영란 집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최현옥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동티모르 평화 복무 이야기

동티모르는 21세기에 제일 먼저 독립한 국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문구 뒤에 서린 아픔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4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아오다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1974년 4월 25일 발생한 포르투갈의 무혈 쿠데타)이 일어나면서 독립이 되나 싶었으나 그 기쁨도 잠시, 1975년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강제 합병되었다.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78.5%의 압도적인 지지로 독립이 결정되지만 인도네시아 군인들은 동티모르를 무력 침공했다. 2001년 동티모르는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정부를 세워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인도네시아 강점기에 당한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시 희생당한 20만 명은 동티모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수치, 동티모르인 대부분은 가족은 잃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

동티모르의 청년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동티모르의 언어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써 오던 때뚱어(현재 동티모르 제2언어)가 아닌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선택했다. 1975년 이후로 포르투갈어를 쓰지 않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낯선 언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사회 공공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에 자신보다 포르투갈어가 뛰어난 동생 세대들이 먼저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탈선이 심하다. 달이 지도록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다. 그러다가 심사에 거슬리게 짓어 대는 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구워 먹기도 한다. 우리 집 개가 그렇게 죽었다.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다. ‘어떻게 주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모임이 ‘에스프레소 타임’(Espresso Time : 커피가 주 수출 상품인 동티모르에서는 모이면

커피를 마신다. ‘만남’이라는 키워드가 이 모임에 있다이다. 이 시간을 통해 나무 심기, 묘지 청소,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의 3.1절과 비슷한 산타크루즈데이(11월12일)를 기념하여 캠페인을 벌였던 일이다. 우리는 ‘산타크루즈데이는 무기가 평화의 답이 될 수 없음을 증언한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국립묘지까지 한 시간가량을 걸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다.

희망공장.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 있는 개척자들 사무실 이름이자 공동체 이름이다. 7명이 함께 모여 사는 우리 공동체가 희망을 팡팡 찍어대는 대규모 공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름다운 재단의 ‘희망제작소’와 그 느낌이 비슷하다. 그때는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 표절한 것 같다는 부담감이 든다.

평화라는 희망을 찾기 위해 엠마와 마이클은 평화학교를 준비하고 정리하며 이들 중 하루는 밤을 샜다. 동과 서로 나누어 이산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던 메신저 팀의 떼와스와 짤레스는 정글에서 길을 잃어가며, 때로는 비가 와서 불어난 강을 세 개씩, 네 개씩 건너는 열심을 보여 주었다. 공동체에 남아서 이 두 팀 뒷바라지를 하며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던 윤애 누나와 마을의 청년들에게 하나의 역할 모델로 자리잡았을 정도로 멋진 형, 오빠의 역할을 했던 우노. 지금 돌아보니 이들과 함께 꿈꾸었던 날들이 하루의 일 같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한 곳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기대한다. 이것은 우리 삶에 또 다른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 캠프의 파송식을 준비하며 공장에서 함께 만든 글의 한 구절을 담아 본다.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테러와 전쟁 그리고 파괴된 자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회복될까요?

우리가 걸어갈 작은 걸음들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겠습니다.

- 이기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2008. 9 ~ 2009. 8 ‘개척자들’ 통하여 동티모르에서 평화복무. 동티모르는 현재, 청파교회의 박정숙 청년이 평화복무 중)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이성복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의 힘없는 햇빛 한 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이 땅에 처지는 것을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훑아주는 가녀린 풀잎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토록 피해 다녔던 치욕이 뻑뻑한,
뻑뻑한 사랑이었음을

소리 없이 돌아온
부끄러운 이들의 손을 잡고
맞대인 이마에서 이는 따스한 불

오래 고통받는 이여
네 가슴의 얼마간을
나는 덥힐 수 있으리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운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양재성	임미심	윤석철	장혜숙	조병무	송양진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한완식	임정자	김재흥	최희영	박옥식	방문성	박해경
조관행	홍선희	박창운	허정윤	김훈동	김준호	곽혜자	이재문	김준우
우순덕	박병구	박애순	이우원	옥귀희	이예정	문복순	김혜권	박재임
서원금	강순배	손성윤	황지현	강미선	최종원	김경연	이광용	형인순
이건식	신영신	송의섭	박시내	백묘현	나승철	윤미경	조항범	오현정
배삼순	박준규	서지영	전월수	김성한	조영순	박영희	방준	방민
박권동								

월정헌금:

정완수	김재광	전영자	이봉배	문금석	김남종	오복순	김종철	고영애
이봉옥	노우종	권혁신	강지은	박인혁	고속이	김명순	이은정	권순
한정애	권미정	박석희	조항미	문홍일	김지훈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하정석	이명희	김기성	왕수명	김지윤	이동천	류건형	이주은	박옥순
하현철	최성애	이광섭	구명자	윤성희	장석원	최윤희	박준희	이기분
조순덕	서지은	백성래	윤수진	김수진	송임희	정두리	송동준	김진경
이유선	방극숙	이정은	정현숙	김영순	임영	정경례	김미순	조병주
이병철	김현진	무명3						

감사헌금:

최정은	김희은	박병구	전성오	김신옥	강미라	원인해	이건식	신영신
박재규	천소현	조관행	홍선희	송양진	김혜영	정연희	최종운	김금하
이목은	하은주	배근수	김금순	백묘현	김순복	무명5		

녹색꿈 헌금:

김희은 김재환 최경미 김창경 이진희

생일감사헌금

이미혜 윤성종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구역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친교실에서 구역회가 열립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당회서기, 감사, 각 부서장, 선교회 총회장, 기관 대표입니다.
2. **수요집회** : ‘별난 복음,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됩니다.
3. **중고등부수련회** :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천안 디아코니아 자매회의 영성과 평화의 집(041-561-9803)에서 열립니다.
4. **선교회** : 셋째 주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선교회는 구역회로 인해 한 주 연기하여 다음 주 오후에 모입니다.
5. **기부금영수증** : 교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지하 재무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임원교육** : 31일 오후 2시~5시에 담임목사님 주관하는 임원교육이 있습니다.
7. **찬양대** :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대나 목회실에 말씀해주시시오.
8. **신앙실천** :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티를 위해 기도합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다음 주 : 다메섹 속)

* 설거지 봉사 : 정희은 이정현 박권동 (다음 주 : 장재영 김재영 유지은)

새교우 소개

김수진 (7여)

이목은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